

## [고3] 15분 모의고사 Final 6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1.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ㄹ. 영화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②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③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④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⑤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ㄱ~ㄷ에 쓸 수 있는 말의 기본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말과 말이 결합할 때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눈, 우박, 서리’를 써서 기상 현상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에 대해서 ‘내리다, 오다’는 쓰지만 ‘떨어지다’는 쓰지 않는다. ‘우박’에 대해서 ‘내리다, 떨어지다’는 쓰지만 ‘오다’는 쓰지 않는다. ‘서리’에 대해서 ‘내리다’는 쓰지만 ‘오다, 떨어지다’는 쓰지 않는다.

◦ 우리는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결론을 ( ㄱ ).  
 ◦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결말을 ( ㄴ ).  
 ◦ 그는 그 저택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 ㄷ ).

- |   | ㄱ   | ㄴ   | ㄷ   |
|---|-----|-----|-----|
| ① | 짓다  | 맺다  | 하다  |
| ② | 짓다  | 내리다 | 맺다  |
| ③ | 맺다  | 하다  | 내리다 |
| ④ | 하다  | 짓다  | 내리다 |
| ⑤ | 내리다 | 하다  | 짓다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의 역사는 신기한 눈요깃거리라는 출발점을 지나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며 고유의 표현 수단을 발굴해 온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학적 차원의 논쟁과 실천이 거듭되었다. 그 중 리얼리즘 미학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프랑스 영화 비평가 바쟁이 있다.

바쟁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조형 예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고대 이집트 인이 만든 미라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어 있거니와, 그러한 ‘복제의 욕망’은 회화를 비롯한 조형 예술에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고 한다. 그 욕망은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 작가의 자기표현 의지와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원근법이 등장하여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성급 다가서면서 회화의 관심은 복제의 욕망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상황은 사진이 발명되면서 다시 한 번 크게 바뀌었다.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이 발휘하는 모사의 신뢰도는 회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진으로 인해 조형 예술은 비로소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영화의 등장은 대상의 재현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바쟁은 영화를,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대상의 ㉠살아 숨 쉬는 재현을 가능케 한 진일보한 예술로 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해진 결과, ㉡더욱 닳은 지문(指紋) 같은 현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바쟁에 의하면 영화와 현실은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지닌다.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연장이며,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에 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이다. 영화의 이러한 리얼리즘적 본질은 그 자체로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단일한 숏\*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전경에서 배경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깊이를 제공하는 촬영을 지지한다.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관객의 시선에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현실을 겸손한 자세로 따라가면서 해석의 개방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바쟁이 내건 영화관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 관점은 수많은 형식적 기교가 발

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지지를 얻으며 영화적 실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숏** : 카메라가 한 번 촬영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연속된 한 화면 단위.

3. 위 글에 나타난 '바쟁'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조형 예술의 역사에는 '미라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
- ② 영화는 회화나 사진보다 재현의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다.
- ③ 영화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다.
- ④ 영화는 현실의 풍부함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다.
- ⑤ 사진은 회화가 표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4. ㉠~㉣ 중 문맥상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 ④ ㉣                      ⑤ ㉤

5. 위 글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을 자제하고 있구나.
- ② 현실을 대하는 것 같은 공간적 깊이감을 보여주는구나.
- ③ 대상을 왜곡할 수 있는 기교를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 ④ 숏의 길이를 길게 하여 현실의 시간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구나.
- ⑤ 화면 속의 중심 요소에 주목하게 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구나.

6.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말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말-'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탈보
- ④ 오뚝이                    ⑤ 달리기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흥보 아내 그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압네.”  
 섰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쿵쿵 발 구르며 하는 말이,  
 ㉠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측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손가. 무궁무진 나의 설움 생각하니 측량없다. 애고애고, 내 일이야.”  
 흥보 듣고 비감하여,  
 ㉡ “이 울음 그만 우소. 속이 매워 못 들겠네.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 측량없네. 우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제 있을 테니 설위 말고 살아 보세.”  
 이날부터 흥보 품을 팔 제, 상하 평전 지심 매기, 전세 대동 방아 짚기, 북경 장사 편지 전하기, 상부군의 대상 메고, 이집 저집 내려 엮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한 말 두 말 마질하고, 여각 주인 말짐 심기, 오 푼 받고 마칠 걸고, 두 푼 받고 쥐구멍 막기, 덧 낭 받고 송장 치기,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벌어도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내더니, 하루는 흥보가,  
 “내 갓망건 두루마기 내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수가 없네.”  
 “읍내는 무엇하러 가라시오?”  
 “환곡(還穀) 호방(戶房)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그것 무슨 말씀이요? 환곡미는 국곡(國穀)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값을 때는 어찌 값게?”  
 ㉢ “여보소, 그 말 마소. 값다 값다 못 값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다. 형님께로 떠넘기세.”  
 (종락)  
 “먹고 노니 졸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요?”  
 “자네 이 말을 천기누설 하지 마소.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오?’ 하기에, 돈 삼십 냥 받고 별도로 마삿 덧 낭까지 받아 왔네.”  
 흥보 아내 이 말 듣고,  
 ㉣ “애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맞을까. 마오 마오, 가지 마오.”  
 흥보 하는 말이,  
 “어허, 그거 방정이로고. 볼기 놀려 쓸 데 있나.”  
 “그러하면 볼기가 다 구실이 있소?”  
 [A]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조 판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볼

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였으니 각청 수석 앉아 볼까.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에 앉아 볼까. 만금 거래 상고 되어 부담마에 앉아 볼까. 이내 몸 궁곤한데 매품이나 팔아먹지 볼기 놀려 쓸 데 있나.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그 돈 삼십 냥 벌여다가 착한 사람 맡겨 두면 이리저리 놀리어서 큰 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그형저형 살아보세.”>

흥보 자식들이 이 말 듣고 벌 때 되듯 하더니만,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거들랑 풍안(風眼)\* 한 벌 사다 주오.”

“이 자식, 풍안 무엇하려느냐?”

그놈 하는 말이,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이월 동풍 부는 때에 뒷간 출입 다니려면 못사람의 발길에 눈에 티가 들어 다닐 수 없어 그리하지요.”

[B] < 또 한 놈이 나왔더니,

“아버지,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

흥보 좋아라고,

“기특한 내 아들이야. 장래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할래?”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어 그놈,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썩 나오며,

“아버지, 나일랑은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粧刀)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

“네 이 자식, 대모 장도 얻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 툄어 차지요.”

흥보 아내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치니, 흥보 하는 말이,

㉠ “요런 몫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 만한 불기쪽에 그새에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 작자 미상, 「박흥보전」 -

\* 풍안: 바람과 티끌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7. 위 글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 ②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 ③ 관가에서 부담 없이 곡식을 빌려 주는 제도가 있었다.
- ④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 ⑤ 노동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8.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빠른 이동을 통하여 긴장을 조성한다.
- ②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
- ③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 효과를 자아낸다.
- ④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여 궁한 신세를 드러낸다.
- ⑤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9.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 ① ㉠: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 ② ㉡: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얽혀 있다.
- ③ ㉢: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④ ㉣: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⑤ ㉤: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10. [B]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 ① 동가홍상(同價紅裳)      ② 동문서답(東問西答)
- ③ 동병상련(同病相憐)      ④ 동분서주(東奔西走)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수고하셨습니다.㉡>